

구두통을 멘 나는 구두방이 있는 거리에 서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기억이 있을까. 나를 낳은 부모도 있을 것이고 형제도 있을 것인데 혼자서 구두통을 메고, 병거지 탈모자를 쓰고, 얼굴엔 땀국이 흐르고, 팔꿈치가 해져 숨이 비집고 나온 점퍼를 걸치고는 거리에 홀로 서 있다니. 게다가 나는 열 한두 살쯤으로 보이는 소년의 얼굴이었다.

곧바로 보스의 지청구가 귀를 때렸다. “인마야. 얼른 구두 거뒀 안 오나. 그래갖고 어디 밥 먹고 살겠나. 싸게싸게 움직이그라.” 나는 고층 건물을 뛰어다니며 구두를 모아오고 광나게 뒀던 구두를 다시 사무실로 바쁘게 날랐다. 한바탕 수선스러움이 지나고 나면 구두방 안에서 보스와 쪼그리고 앉아 배달음식으로 늦은 점심을 먹었다.

“구두약이 시커멓지만 서도, 이기 마 광이 나는 거 아يا. 우리는 새까만 것을 광으로 만드는 사람인가. 니도 광나는 것 안 좋나?” “지는 배 부르는 기 좋습디.” 보스는 자장면을 한 볼테기 머금은 나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갈았다. 하지만 재빨리 입을 다물어 면발을 튀어나가지 않았다. 나는 아랑곳없고 후루룩 면발을 빨아들었다.

“인마야. 배 부르는 기는 암 것도 아닌 기라. 구두뒀이가 마 광에 살고 광에 죽겠다는 땀이 없으면 이 짓 마 절대 못한다. 나는 마 고만 처먹고 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그라.”

그 후 내 삶은 세 평 남짓한 구두방 안에서만 흘렀다. 그 기억이 전부였다. 정부의 거리 미화 정책으로 두 평의 구두방이 구두미화센터라는 간판을 달고 세 평 정도로 넓어진 게 변화라면 변화였다. 내 삶이 두 평에서 세 평으로 넓어진 사이 나는 조금씩 키가 자랐고, 나이도 들었다.

구두방은 구두를 신은 온갖 사람이 들끓었다. 그만큼 많은 정보가 내게 전해졌다. 은행원과 증권맨, 부동산 중개사에게서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공무원들은 나라 돌아가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선거철이면 구두방에 오는 손님들 이야기를 통해 어느 당이 이길 건지, 그리고 국회의원은 누가 될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 나는 한 곳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 구두를 뒀고 사람들 이야기들을 가져와 내게 부러놓았다. 가끔 고급정보라는 판단이 서면 금융상품을 샀고 부동산 투자도 했다. 은행잔고가 조금씩 쌓이더니 꾸준히 늘었다. 구두방이 세상의 전부인 내게는 돈을 벌어야 특별히 쓸 곳도 없었다. 들어오는 돈은 있고, 나가는 돈이 없으니 돈은 모이기만 했다. 한 번 들어온 돈은 구를 때마다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덩치가 커졌다.

구두방에 오면 가장 먼저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켜고 문을 닫을 때 켜었다. 방송에서는 총 맞아 죽은 대통령 소식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통령의 탄핵과 북한의 젊은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추진한 대통령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 최근에는 검찰총장을 하던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 사이 수명이 다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한 번 새로 바꿨을 뿐이었다. 한동안 돈 많은 재벌 회장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뉴스가 자주 들렸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후계구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한바탕 난리가 났다.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 증여와 상속의 유·불리를 따졌다. 죽음보다는 돈 이야기가 많았다. 끈이어 늙은 아버지를 사이에 놓고 형제간 후계싸움을 하는 또 다른 재벌 이야기도 나왔다. 뒤이어 재벌 아버지가 죽자 남매간에 경영권 다툼이 벌어진 기업의 얘기도 퍼들췌했다. 뉴스 들으며 물려준다는 것은 곧 싸운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등식이 왜 성립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후계자들 간의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설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게는 아주 낯설었다.

재벌들의 상속뉴스가 요란하던 어느 날 방송국 기자가 나를 찾아왔다.

“사장님! 후계자를 구한다는 기사를 보고 취재차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여자였다. 바로 뒤로 카메라가 불쑥 따라 들어왔다. 나는 여자의 구두부터 보았다. 통굽의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광택이 없고 벨벳 같은 표면으로 보아 스웨이드 소재로 만든 구두였다. 스웨이드 구두는 여간해서서 간수하는 게 쉽지 않았다. 물에 약하고, 오염을 제 때 제거하지 않으면 금방 곰팡이가 번식해 냄새가 났다. 여자의 구두는 세 것처럼 자잘한 보풀이 잘 살아 있었다. 구두에서 정갈한 여자의 성격이 보였다. 베이직색 정장바지에 광택 없는 스웨이드 구두는 썩 어울렸다. 비

로소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보았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40억 원을 걸고 후계자를 구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만난 기자들은 당연히 내가 인터뷰를 할 것이라 여기고 불쑥 마이크나 녹음기부터 들이밀었다. 그런데 여자는 내게 조심스런 태도로 동의를 먼저 구했다. 내가 아무 말이 없자 여자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건넸다. 나도 목례로 답하고 여자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카메라 렌즈 위에서 붉은 빛이 깜빡거렸다.

“일단 구두를 좀 벗어 주겠소?” 여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미소를 머금고 구두를 벗었다.

“스웨이드군요. 관리를 아주 잘 했네요.” “어머, 금방 알아보시네요. 방송국 근처의 구두방에 종종 맡기거든요.”

“허허, 아가씨는 좋은 구두방을 만난 것 같소. 솜씨가 아주 깔끔합니다.”

여자가 명함을 건넸다. 내게는 생소한 방송국의 경제부 기자라고 적혀 있었다. 여자는 가족이

기를 좋아했고 목소리가 컸다. 구두방에 오는 손님들과 얘기하는 것을 즐겼다. 손은 쉬지 않고 구두를 뒀으면서 입 또한 놀지 않았다. 손님에게 묻고 또 물었다. 손님이 무엇이라도 질문하면 신나게 대답했다. 손님이 없을 때는 내게 말을 걸었다. 그 수많은 말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건 기억에 없다. 다만 때별이기 좋아하는 보스 곁에는 역시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딱히 구두를 뒀을 일이 없는데도 구두방에 찾아와 수다를 떨다가는 사람도 있었다.

보스는 낮에는 구두를 뒀고 밤에는 반짝이게 뒀어놓은 손님의 구두 중에서 제일 값비싼 것을 골라 신고 색주가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사실은 술이 마시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색주가로 간 것 같았다. 말하고 술 마시고, 술 마시고 말했다. 색주가의 색시들은 보스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주었다. 말이 많기로는 보스나 색주가의 색시들이나 서로 뒤지지 않았다. 보스는 구두방에 들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고, 색시들은 색주가를 들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 웃고 욕하고 비난하고 칭찬했

나는 열심히 일했다. 구두를 뒀는 것이 재미있었고, 특히 구두에 광을 내는 일이 즐거웠다. 그것이 보스와 나의 공통점이었다. 보스는 종종 광을 낸 구두코에 자신의 얼굴을 비쳐보곤 했다. 내 얼굴도 비쳐보라고 했다. 거울처럼 선명하게 얼굴이 비치면 구두가 잘 뒀인 거라고 했다. 구두코만이 아니었다. 구두 옆, 앞, 뒤 굽까지 보스는 구석구석 문지르고 비웠다. 어쩔 땐 무슨 속명처럼 광이 날 때까지 집중했다. 땀방울이 광 난 구두코에 똑 떨어져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때도 있었다. 그런 보스를 볼 때 나는 뭘지 모르는 숙연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술독에 빠져서 구두를 뒀을 수 없는 날들이 많아지자 보스는 본격적으로 내게 구두 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그는 구두방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이틀 사흘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날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그 색시랑 야반도주라도 한 것일까. 고백하자면 이 세평 남짓한 구두방의 주인은 그러니까 보스였다. 거리를 떠도는 나를 구두방으로 데리고 와서 밥을 사주

“이기 마 더럽다고 하는 치들도 있지만 서도 구두는 마, 침으로 뒀아야 광이 잘 나는 기라.”

정말로 손님들 중에는 꼭 침으로만 광을 내달라고 말하는 이가 많았다. 다만 구두 안으로 침이 들어가지만 않게 하라는 당부도 했다. 보스는 구두가 많이 밀릴 때면 침이 고이지 않냐며 투덜거렸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났다며 사발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입에 침이 고일 때마다 여그에 빨그라잉.” 내게 일이 하나 더 생겨났다. 건물을 오르내리며 구두를 모아오는 일과 침을 모으는 일. 나는 가끔씩 내가 아는 단골손님들에게도 침을 빨아달라고 했다. 어느새 침으로 구두를 뒀는 보스의 구두방은 광을 가장 잘 내는 구두방으로 소문이 났다. 거리에 구두방이 서너 개 있었지만 보스에게 구두를 뒀으면 광이 오래가는데 다른 곳은 그렇지 않다고 불평했다. 보스는 더 신이 나서 침을 빨아주며 손을 제게 놓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침으로 구두를 뒀는 게 무슨 특별한 비법일 수는 없었다. 다만 침의 점액성분이 완전히



그림-한희원

없느냐고 물었다. 거액의 유산이라면 가족에게 물려주면 될 텐데 공개적으로 후계자를 구한다니 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가족 또한 없다고 말했다. 여자가 나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불현 듯 외롭지 않느냐고 물었다. 기자로서 묻는 질문치고는 느닷없었지만 나는 그 불음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잠깐 침묵이 흐르는 사이 나는 정말 외로움을 느꼈다. 그것이 딱히 외로운유지 정확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 그리웠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뒀어놓은 구두를 꺼내 신었다. 한발 앞으로 나서면서 기자에게 물었다.

“내 양복과 구두가 어찌 잘 어울리는 것 같소?”

여자는 카메라에 손짓을 했다. 구두를 찍으라는 신호인 것 같았다. 여자가 내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구두뒀이가 웬 양복에 구두냐고 되묻는 듯 의아한 시선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양복 입은 보스를 떠올렸다. 내게 양복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보스였다. 그의 이목구비는 기억이 아스라했지만 양복에 구두를 신은 그의 실루엣은 뚜렷했다.

보스는 큰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다. 말하

다. 그런 날이면 보스는 어김없이 술독에 빠졌고 다음 날 늦어서야 구두방에 나오곤 했다.

단골손님이 많아지면서 보스의 색시집 출입도 잦아졌다. 그만큼 자주 걸근했다. 나는 보스가 어디에 사는지 가족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저 구두방으로 출근해 건물을 돌며 구두를 가져오고, 보스가 없는 날이면 서툰 솜씨로 새 없이 직접 구두를 뒀었다. 구두방 바구니에 돈이 가득할 때쯤엔 보스가 나타나 돈을 가져갔다. 한 번은 색시를 데려오기도 했다. 색시는 짧은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은 채 구두 통 위로 다리를 올렸다. 치마가 견여 올라가자 허벅지 사이로 빨간 꽃무늬 팬티가 뻗어 내비쳤다.

“빠까반짝하게 한번 뒀아 봐.”

보스는 아이러미 놀리지 말라고 했지만 색시는 키득키덕하며 다리를 더 높이 들었다. 나는 눈을 치켜뜨다 말고 더 이상 위를 쳐다보지 못하고 구두를 뒀었다. 그녀의 발등에 구두약을 칠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내 머리카락을 흘트리며 깔깔거렸다. 보스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가끔씩 그녀가 나타나 보스의 심부름이라며 돈을 가져가기도 했다. 보스가 내게 구두뒀는 법을 알려 줄 수도 있었니 열심히 일하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보스가 있든 없든

고, 달 방을 얻어주고 구두 뒀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보스가 내게 물려준 것이었다. 물려준다는 말은 없었지만 나를 구두방에 두고 그가 사라져 버렸으니 자연스럽게 내가 맡은 격이었다. 그가 주인이었고 나는 종업원이었다. 종업원이 구두방을 물려받았으니 기업으로 치면 나는 전문경영인쯤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면 괜히 어깨가 으쓱거려졌다. 처음엔 그를 기다렸다. 어디서 술에 빠져, 색시에 빠져 술한 말을 쏟아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지만 언젠가 나타나리라 믿었다. 구두방을 잘 지키면 보스가 나타나 어따 이노르 지속할 꾸러냈네, 하고 칭찬해주기를 기다리던 세월이 흘렀다. 나는 언제부터 그 보스를 잊어버렸을까. 스스로 내 인생의 보스가 되어주겠노라며 자신을 보스로 부르라던 그였다. 그가 보고 싶었다. 나에게 가족이라고 한다면 보스를 빼고는 누구도 없었다.

보스가 색주가를 드나들면서 술에 절여 구두를 뒀어놓지 못한 날이면 이른 아침 구두를 찾으러 온 손님들이 엄청나게 화를 냈다. 그날은 덩달아 나도 손님이 엄청나게 혼이 났다. 그런 날이 반복되자 보스는 내 손을 잡아끌어 자기 곁에 앉혔다. 구두 통 위에 구두 한 짝을 올리더니 침을 연 거꾸 빨아주며 잘 보라며 큰 목소리로 말했다.

사라질 때까지 구두를 문지르는 횟수가 많아진 것이 다른 점이었다. 그만큼 광이 더 잘 났던 것이다.

보스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구두를 뒀었다. 넥타이까지 반듯하게 맨 차림에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침을 뿜뿜 뿜어주며 구두를 뒀는 모습이 어린 내게는 그렇게 멋져 보일 수 없었다. 양복 입은 그에게 엄지를 치켜 올리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보스가 구두를 뒀으며 말하곤 했다.

“구두란 말이여.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남자를 가장 앓싸리하게 만드는 약세사리인기라. 구두가 지저분한 사람치고 잘나가는 사람 절대 없다. 빠까반짝하더란 말 들어 봤제. 사람이 빠까반짝하려면 반짝반짝 광나는 구두가 기본인기라.”

그러다 침을 뿜으며 또 말했다. 빨아진 침이 구두에 퍼지고 광목천이 지날 때마다 광은 더 살아났다.

“인마야! 니도 마 내가 양복 한 벌 사 주구마. 구두뒀이가 양복을 입지 않으면 구두의 참 맛을 알 수가 없는 기라. 앞으론 구두를 뒀고 나서 꼭 신어 보그네. 광이 양복 바짓단 밑에서 반짝반짝 살아나지 않으면 마 구두 다시 뒀어야 하는 기라.”

